

김은주의 별자리

Astrology 기초반

07. 천칭자리

당신이 천칭자리라면?

01. 나는 언제 행복한가?

02. 나의 취미는?

03. 나의 단골집은?



Libra

Libra

천칭자리

특성

천칭자리는 9월 23일부터 10월 23일까지 아름다운 계절 가을에 태어났다. 천칭자리는 사물이나 일, 사람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위해 이리 보고 저리 보며,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대화와 일의 진행이 느리다. 생각하다 지쳐 판단을 다음으로 미루는 일도 많다.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행성, 금성의 지배를 받아 가만히 있어도 매력적인 데다, 쌍둥이자리, 물병자리와 함께 공기 성향의 별자리로 언어 영역에 강해 대화술이 뛰어나다. 평화를 사랑하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별자리가 천칭자리다.

9월 23일 추분 ~ 10월 23일 상강

상징 : 저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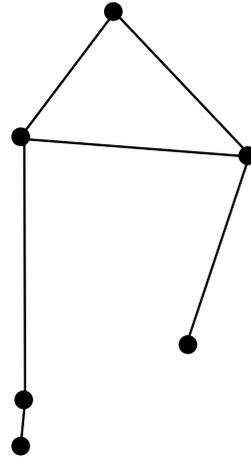
지배행성 : 금성(Venus)

구성원소 : 공기

상태 : Cardinal (시작)

키워드 : 조화, 균형, 평화

07. 천칭자리



Libra



Venus



Libra

아스트라이아의 저울

정의의 여신, 산치오 라파엘로, 15C.

신화

오비디우스의 <변신이야기>에 따르면 인간 세상에서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인간을 떠나자 마지막까지 이 땅에 남아 있던 불사의 처녀신 아스트라이아도 머리를 풀고 이 피 묻은 땅을 떠났다."고 한다.

아스트라이아는 하늘에 올라 별이 되었는데, 그녀는 처녀자리가 되었고 그녀가 정의의 여신으로서 들고 있던 저울은 천칭자리가 되었다고 한다.





Libra

인간의 운명을 재고 있는 주피터

니콜라이 아빌고르, 1793.

신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서는 제우스가 여러 번 운명의 저울을 이용한다. 가령 그리스군과 트로이군이 전투를 벌일 때 저울을 이용하여 어느 군이 더 우세를 취하게 되는지를 시험하기도 한다.





Libra

Venus **금성**

지배행성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올림포스 12신 중 하나로 미와 사랑의 여신이다. 여성의 성적 아름다움과 사랑의 욕망을 관장하는 여신이다.

제우스의 딸이라고도 하고 우라노스의 잘린 성기에서 흐른 정액이 바닷물과 섞여 생겨난 거품에서 태어났다고도 한다. 주로 탐스러운 가슴을 드러낸 벌거벗은 몸으로 표현된다. 로마 신화의 베누스와 동일시된다.



금성 Venus





Libra

1

파리스의 심판

루벤스, 1639.

지배행성 신화

영웅과 신들의 전쟁 트로이 전쟁Trojan war도 아프로디테와 연관이 있다. 바다의 여신 테티스Thetis와 인간 펠레우스Peleus의 결혼식에 올림포스 모든 신들이 초대되었다. 단 한 명, 불화의 여신 에리스Eris가 빠졌다. 에리스는 결혼식 연회석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에게 바친다’는 글이 새겨진 황금 사과를 던져 불화를 일으켰다. 이 사과를 놓고 신들의 여왕 헤라Hera, 전쟁과 지혜의 여신 아테나Athena,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Aphrodite가 다투자 제우스는 인간 중에서 가장 잘생긴 파리스Paris에게 심판을 맡겼다. 헤라는 파리스에게 최고의 권력을, 아테네는 뛰어난 지혜를, 아프로디테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주겠다고 유혹했다.





Libra

2

파리스의 심판

루벤스, 1639.

지배행성 신화

파리스는 아프로디테를 선택했고, 아프로디테는 파리스에게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네^{Helene}를 주었다. 아내를 빼앗긴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오스^{Menelaos}는 형 아가멤논^{Agamemnon}과 트로이로 쳐들어간다. (파리스는 트로이의 왕자로 태어났으나 조국 트로이를 멸망하게 한다는 신탁 때문에 버려졌었다.)

오디세우스^{Odysseus}의 계책인 트로이의 목마로 그리스가 승리하고, 파리스는 독화살에 맞아 최후를 맞는다.





Lib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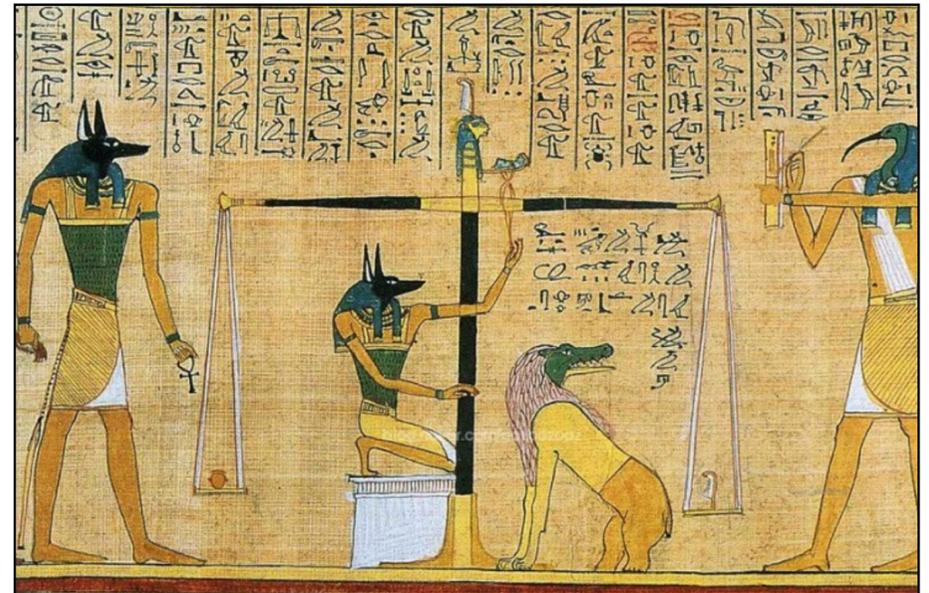
사자의 서

영국 런던 대영박물관

지배행성 신화

미라와 함께 묻은 지하 세계의 안내서.

1. 왼쪽 자칼머리를 하고 있는 것은 장례의 신인 아누비스. 아누비스는 장례를 주관한다.
2. 오른쪽 따오기 머리를 하고 있는 사람은 전령의 신인 토트. 토트는 기록을 주관한다.
3. 저울의 왼쪽에는 인간의 심장이 올라가 있다. 죽은자의 심장 무게를 잰다.





Libra

Jane Austen

제인 오스틴



유명인



☉ 사수자리 × ☾ 천칭자리

1775년 12월 16일

오만과 편견

07. 천칭자리



Libra

국민 첫사랑 **수지**
유명인



☉ 천칭자리 * ☾ 사수자리

1994년 10월 10일

<건축학개론>



Liliane Bettencourt

릴리안 베탕크루

Libra

유명인



☉ 천칭자리 × ☾ 전갈자리

1922년 10월 21일

로레알

상속 재산



Libra

I Weigh (무게재다)

Balance (균형잡다)

화법

지적으로 단정하고 우아하게 사교적인 태도로 자기 생각을 표현한다.

극단적인 견해를 피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화롭게 생각을 표현하려고 한다.

미적,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언어를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인간관계에서 객관성과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며,
자기 생각의 확실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자기 말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을 기대한다.

여러 견해를 공정하게 고려하려는 태도 때문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우유부단할 수 있다.



Libra

천칭자리 알아보는 방법

화법

잠이 중요해요.

밥을 잘 안 먹어요.

겁이 많아요.

외출 준비하는 데 오래 걸려요.

고집이 세요.

선택 장애가 있어요.

멋을 너무 부려요.

주목받고 싶어해요.

끝마무리가 약해요.

눈물로 해결하려 해요.



Libra

1

박세리

유명인

“친구가 아마추어 골프대회에 데리고 갔었대요. 거기서 ‘한국 중학생 가운데 골프를 가장 잘 친다’, ‘한국 초등학생 중에는 애가 제일 잘한다’며 또래 여자 선수들을 소개해줬답니다. 그때 찌릿찌릿 전율이 왔답니다. 누가 자기를 소개할 때 ‘애가 한국에서 1등이야’ 이러면 얼마나 멋질까 싶었대요. 자기는 세계 1등이 돼보겠습니다.”

박준철



☉ 천칭자리 × ☾ 양자리

1977년 9월 28일

♎

Libra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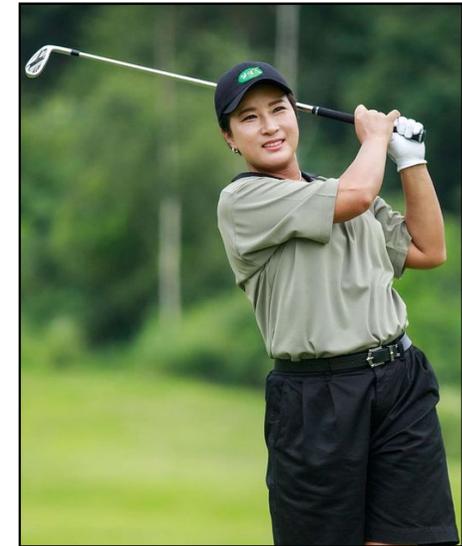
박세리

유명인

Q. 완벽한 스케줄 속에서도 슬럼프가 올 수 있다는 거군요.

A. 결국 균형이 중요했어요. 균형을 맞춰야 했는데 어느 순간 골프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나는 괜찮다"라고 최면을 걸었지만 육체와 정신 모두 힘들었어요. 저한테 너무 인색했던 겁니다. 마음의 여유를 주지 않은 거죠. 모든 걸 계획대로 완벽하게 하면 된다고 생각한 것이 옳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 저는 균형점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물론 어려워요. 특히 저는 바쁜 걸 즐거워하는 성격이라서 더 그렇죠. 그럼에도 지금은 그 와중에 소소한 즐거움을 찾는 편이에요. 친한 지인들과 쉬는 날을 맞춰 만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야기 나누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멀리 있지 않은 잠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폴인인사이트] 박세리 "시도하라, 대신 스스로에게 덜 인색하라"



☉ 천칭자리 × ☾ 양자리

1977년 9월 28일



Libra

당신의 아이라면

양육

천칭자리 어린이는 외로움을 많이 탄다. 1:1의 균형이란 혼자 만들 수 없는 것이니까 언제나 상대가 필요하다.

사물이나 일, 사람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위해 이리 보고 저리 보며,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대화와 일의 진행이 느리다. 생각하다 지쳐 판단을 다음으로 미루는 일도 많다. 천칭자리 어린 아이에게 한 번에 여러 가지 음식을 주면 무엇부터 먹을지 몰라 허둥댄다.

선택을 빨리 못해 우유부단하고 일의 마무리를 못하는 경향이 있다.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놀고, 적당히 사랑한다. 쉽게, 쉽게 이지 고잉(easy going)하려 한다. 상대의 눈치를 보느라 자신의 의사표현을 잘 못하기도 하는데 이는 고쳐줘야 한다.



Libra

사랑

밀당과 어장 관리의 천재(?)

천국도 지옥도 없고, 나라도 종교도 없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사는 세상. 존 레논의 '이메진Imagine'은 천칭자리가 그리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이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세상에도 분명한 자기표현이 필요하다. 양자리, 사자자리처럼 사랑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나서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자기가 뭘 먹고 싶은지(메뉴판 공부 좀 그만하고), 어딜 가고 싶은지("어딜 갈까?" 묻는데, "당신은 어디 가고 싶어? 반문하지 말고) 정도는 분명하게 선택하라.

저울의 습성처럼 상대의 말과 행동을 보고 나서야 반응하는 천칭자리 때문에 상대는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간다. 게다가 타고난 바람둥이 기질로 이성 없이 절대 지내지 못하는 천칭자리는 결혼 후에도(아마 죽을 때까지), 수많은 이성친구들과 함께 할 텐데... 미남, 미녀도 괴롭지만 그들의 이성친구는 더 괴롭다는 걸 잊지 말라!



Libra

당신이 지금 천칭자리를 사랑하고 있다면

사랑

아름답고 멋진 그/그녀와의 데이트를 위해서는 피가 튀고 폭력이 난무하는 잔혹 스릴러 영화 대신, 아름다운 사랑이야기의 멜로 영화나 로맨틱 코미디를 보러 가야 한다. 메뉴를 빨리 선택하라고 다그치지 말고, 맛있는 코스 음식을 추천해 줘라.

때로 일하는 동안 전화를 걸면 "바빠, 끊어."하고 냉정해질 수도 있지만 당신의 일과 개인시간도 방해하지 않는다. 하지만 유지비도 많이 들고, 죽을 때까지 바람기도 잡을 수 없으니 웬만하면 초장에 도망쳐라. 그런데 천칭 자리에겐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그의 우유부단함에 끌려 다니다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기 전에 당신이 앞장서서 일을 진행시키거나, 그가 결심할 수 있게 칼을 빼들고 균형을 깨뜨려야 한다.



Libra

미녀는 괴로워

영화

“울어야 할 사람은 강한나야. 갠 재능 있어도 못생기고 똥똥해서 불쌍한 앤 거고,
넌 재능 하나 없어도 이쁘고 짹짹 복 받은 애고.
니가 다 가졌어. 갠 널 빛내주기 위해 존재해. 그게 전부야.”
제니와 상준의 대화를 엿들은 한나는 죽을 결심을 한다

“I'm a beautiful girl 난 beautiful girl
미모는 나의 무기
I'm a beautiful girl 난 beautiful girl
모두들 날 사랑해 I'm a beautiful girl”
OST [beautiful girl] 가사



Libra

Her

영화

“I'm yours and I'm not yours.”

사만다의 대사



Libra

오만과 편견

소설

“재산 깨나 있는 독신 남자에게
아내가 꼭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진리다.”

제인 오스틴 <오만과 편견> 첫 문장



Libra

아큐정전

소설

“내가 아큐(阿Q)의 전기를 써야겠다고 작정한 것은 한두 해 전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줄곧 망설였던 것은, 나 자신이 후세에 길이 전해 줄 만한 글을 쓸 위인이 못 되는 까닭도 있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루쉰 <아큐정전> 첫 문장

“아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살다 보면 어떤 때는 끌려 나가기도 하고 끌려 나오기도 하는 것이며, 동그라미를 그려야 할 때도 있는 것이려니 생각했다. 다만 동그라미가 제대로 안 그려진 것이 하나의 오점으로 마음에 남아 있을 뿐이었다.”

루쉰 <아큐정전> 중



Libra

만종

1857~9.

그림

황혼이 지기 시작한 전원을 배경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는 농부 부부의 모습.





Jean François Mill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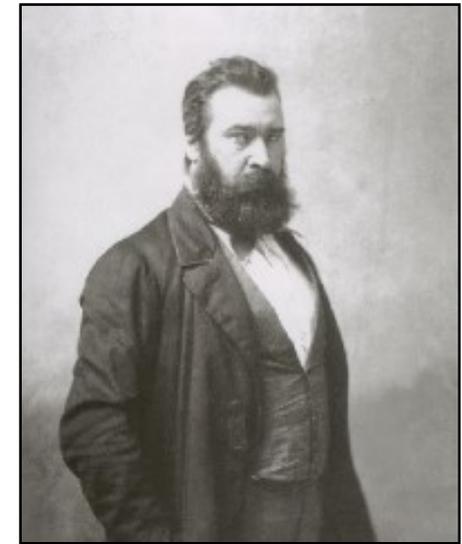
장 프랑수아 밀레

Libra

1

화가

“타인을 감동시키려면 먼저 자기가 감동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 못하면제 아무리 우수한 작품일지라도 생명이 길지 못하다.”



☉ 천칭자리 × ☾ 물고기자리

1814년 10월 4일



Libra

폴린-비르지니 오노의 초상

밀레, 1844.

2

화가

밀레의 첫 부인.





Libra

3

씨 뿌리는 사람

밀레, 1865~66.

화가

“예술은 아름다움을 추구해. 사람들은 아름다운 그림을 원한다고!
당신은 분명 다른 목적이 있어서 일부러 추한 그림을 그리는 거야!”

“예술은 단순히 화려하고 예쁜 것만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슬픔과 고통까지도 표현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예술이지요.”

농부 그림에 대해 비평하는 평론가와 밀레의 대화





Libra

당신의 상사라면

리더십

음풍농월하는 한량과 수완 좋은 로비스트 사이를 오가는 캐릭터.
회사 생활이 딱딱하지 않은 건 좋은데 업무를 본때 있게 배울 기회가 별로 없다.

워낙 유능하고 인맥까지 뽐뽐하니 후배 입장에선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잡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어느 쪽이라고 해도, 평화롭고 예술적인 그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건 즐거운 일.

그에게 선물해야 한다면 예술적인 센스가 갖든 것으로.



Libra

당신의 직원이라면

리더십

동료의 눈에는 일은 별로 안 하면서 요령껏 잘 빠져나가는 얄미운 캐릭터로 보일지 모른다.

상사의 눈에는 미울 까닭이 없다.
그의 친화력, 좀 더 노골적인 표현을 쓰자면 애교 덕분이다.

업무 시간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땡땡이를 치고는,
돌아오면서 슬쩍 도넛 한 상자를 안기는 식.

(단, 염소자리나 전갈자리 상사에게는 통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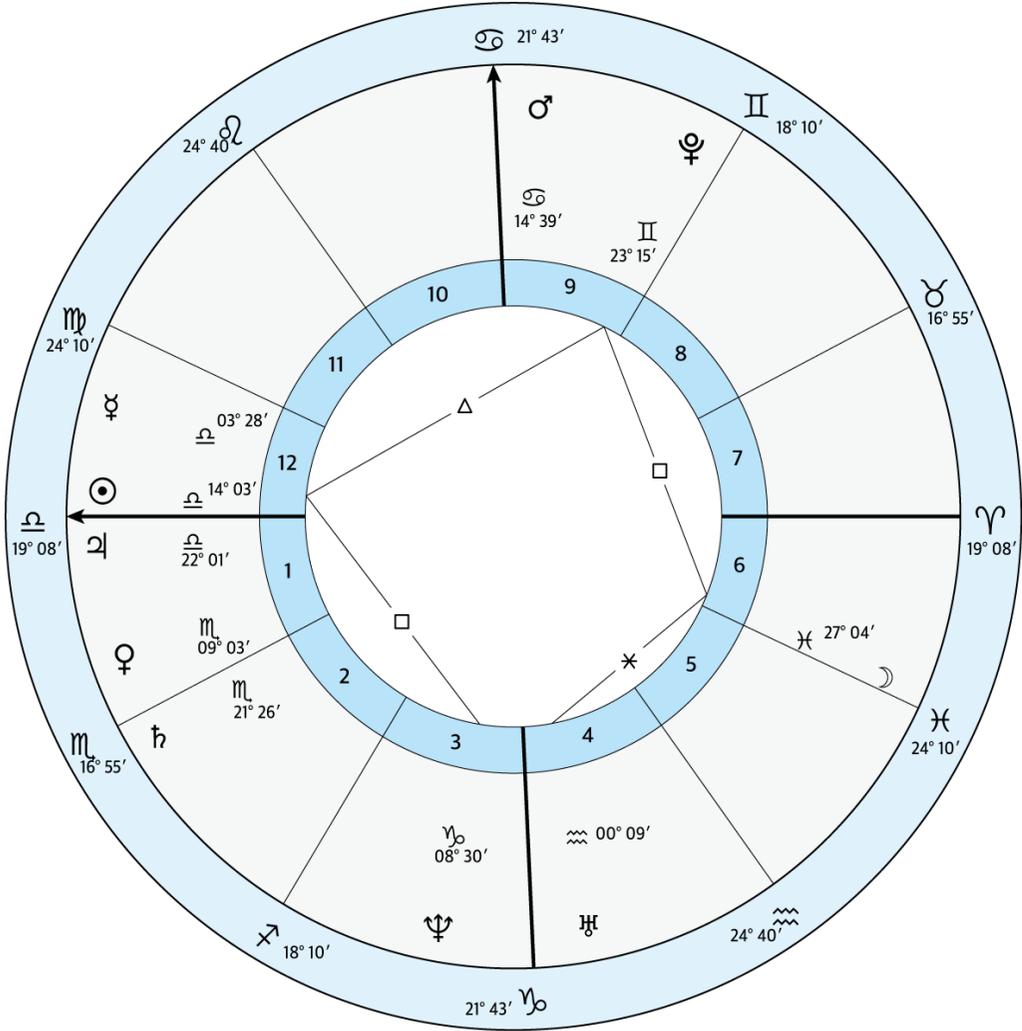
07. 천칭자리



Libra

역사

1



조선 19대왕 **숙종**

☉ 천칭자리 × ☾ 물고기자리
1661년 10월 7일

NATAL CHART



Libra

조선 19대왕

숙종

2

역사

서오릉西五陵은 원래 세조가 자신의 맏아들 의경세자(덕종)가 죽자 길지를 택해 능으로 삼은 곳이다. 숙종과 계비 인현왕후, 인원왕후의 무덤을 합친 명릉이 있고, 숙종의 정비 인경왕후仁敬王后(익릉) 후궁 희빈장씨(대빈묘) 등 숙종의 여인들과 숙종이 사랑한 고양이 김묘도 함께 묻혀 있으니 현재 서오릉의 주인은 숙종이다.





Libra

“우리 숙종대왕도 일찍이 김묘金猫 한마리를 길렀다.
숙종이 세상을 떠나자 그 고양이가 역시 밥을 먹지 않고
죽으므로, 명릉明陵 곁에 묻어주었다.”

이익의 《성호사설》 中



Libra

조선 19대왕

숙종

4

역사

“흰 기운이 서쪽으로부터 중천에 뻗쳐서 그 모양이 혜성彗星과 같았고 여러 날 동안 사라지지 않았다. 장녀張女가 일개 폐희嬖姬로서 임금의 총애를 받아 필경에는 왕비의 지위를 빼앗아 왕후에 승진하기에 이르러 화란禍亂을 끼치고 큰 파란을 일으켰는데, 그녀가 임금의 총애를 받기 시작한 것이바로 이 무렵이었으니, 이로써 하늘이 조짐을 보여주는 것이 우연이 아님을 알겠다.”

《숙종실록》 10권, 6년(1680) 11월 1일



수표교



Libra

조선 19대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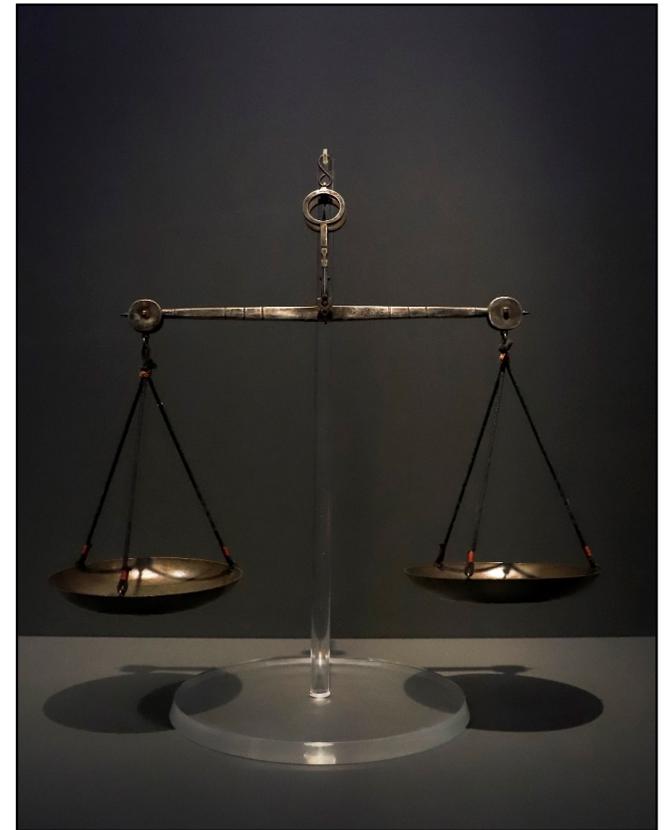
숙종

5

역사

조선 최고의 스캔들, 나쁜 남자 숙종

천칭자리 왕 숙종은 여인의 치마폭을 오간 것이 아니라 사랑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장희빈은 남인이자 양란과 경신대기근을 거쳐 신분제가 흔들리고 상업이 발달하면서 성장한 중인의 대리인이었다. 중인이 막강한 부를 바탕으로 정치권에 손을 뻗치기 시작한 것이다. 갑술환국 처리 과정에서, 중인과 상인 계층의 자금이 뇌물로 이용된 사실이 드러나자 왕과 조정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노론과 소론은 서얼, 역관, 무인, 상인 그리고 노비층과도 연계되어 남인 축을 몰아내는 데 필요한 거사 자금과 힘을 빌렸다. 이후 장희빈과 남인의 부정부패가 심해지자 숙종은 장희빈을 내치고 다시 인현왕후에게 중전의 자리를 돌려주었다.





Libra

조선 19대왕

숙종

6

역사

“국가가 불행하여 동인東人·서인西人을 표방한 이래 100년이 되었는데, 날이 갈수록 고질痼疾이 되고 있으니, 한탄스러움을 금할 수 있겠는가?”

《숙종실록》 65권, 숙종대왕 행장





Libra

조선 19대왕

숙종

7

역사

“지난날에 여러 신하들이 득죄得罪한 것은 그 근원이 신에게서 나왔으므로 선왕先王께서 여러 신하를 죄중에 있어, 신의 죄상이 여러 번 전교傳敎에 나왔지만, 특히 그 성명姓名을 들지 않았을 뿐입니다.”

《숙종실록》 1권, 즉위년(1674) 9월 8일

“기해년 서자 기복庶子菴服을 조술祖述할 적에 서자의 설說은 실로 송시열에게서 창도된 것입니다. 사론邪論에 붙은 김수흥金壽興도 오히려 편배編配되었는데, 사론을 창도한 송시열이 어찌 헌장憲章에서 빠진단 말입니까?”

《숙종실록》 1권, 즉위년(1674) 9월 25일



Libra

조선 19대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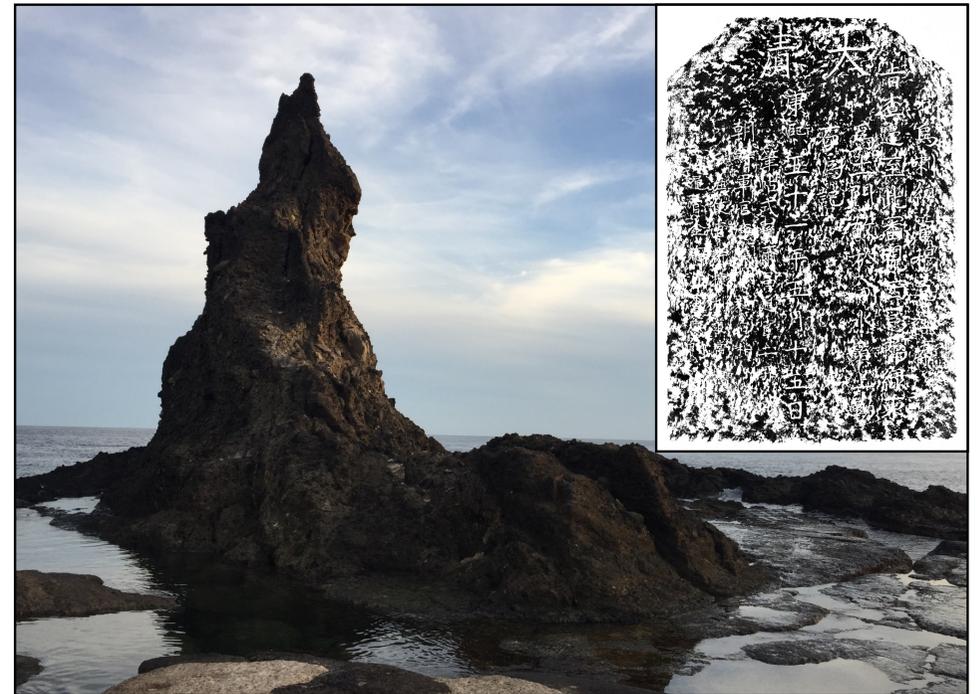
숙종

8

역사

“두 섬은 이미 너희 나라에 속하였으니, 뒤에 혹 다시 침범하여 넘어가는 자가 있거나 도주가 혹 함부로 침범하거든, 모두 국서國書를 만들어 역관譯官을 정하여 들여보내면 엄중히 처벌할 것이다’ 하고, 이어서 양식을 주고 차왜差倭(조선 시대에 일본에서 조선에 보내던 사신)를 정하여 호송하려 하였으나, 제가 데려가는 것은 폐단이 있다고 사양하였습니다.”

《숙종실록》 30권, 22년(1696) 9월 25일(안용복의 말)



Q&A

전갈자리 작품

박찬욱 <올드보이>

미셸 공드리 <이터널 선샤인>

존 스타인벡 <분노의 포도>

THANK YOU